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김영란목자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나를 위한 십자가 (행 2: 36-38)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웬말인가 날 위하여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말라” (창세기 47:7-9)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헛수가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제가 누린 헛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이 질문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답게 살아 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야곱은 “제가 130 년을 살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는 잘못된 삶을 통해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험악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설 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몇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장자가 받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예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고 축복하겠다**” 라는 약속을 분명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이 들고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에게 하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으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 고향과 가정을 떠나 홀로 먼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들들에게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죽었다고 속임으로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면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 속에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후회없는 삶, 험악한 인생이 아닌 축복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새벽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 **주일 예배 점심** -주일 예배후에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자원자를 받습니다. 게시판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4. **초원모임** - 8월 22일 주일 오후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22	8/29	9/05	9/12
대표기도	윤완선	유경주	고현명	조현숙
헌화성도			조현숙	윤완선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420.38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교회창립 기념예배	9 월 12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새벽예배의 시편 말씀을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귀한 것은 새벽예배를 실시간 방송으로 나누면서 그동안 새벽예배를 교회에 나와 드릴 수 없었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중 새벽에 교회에 나와 새벽예배를 드리고는 싶지만 운전하는 어려움, 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와 배우자의 직장을 준비하는 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새벽예배의 찬양과 말씀, 기도에 참석함으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작년 12 월부터 시편의 말씀을 매일 한편씩 강해설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이 150 편으로 되어 있고 사실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큰 주제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처음 시편의 말씀을 강해할 때 40 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한편 한편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새벽예배에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힘과 위로, 소망과 기도의 힘을 주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 힘을 얻는다는 말도 들으면서 40 편을 지나 150 편을 장장 9 개월에 걸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편 묵상을 마치며 먼저는 웬지 큰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대견함과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 감사한 것은 시편 한편 한편을 묵상할 때 그 시편의 말씀 속에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 도전을 주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입니다. 시편의 첫편인 1 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귀한 힘과 기쁨을 주는 복임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날의 말씀 묵상과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집 두 아들들은 몇 개월간 들어야 하는 시편이 너무 길고, 거의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지루하다고 (?) 언제 시편이 끝나냐고 투정을 조금 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에 “그렇구나”라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벽예배에 새롭게 동참하시어 매일 매일 감사와 기쁨, 찬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뿌리가 세워지시기를 다시한번 도전합니다. 함께 새벽예배에서 뱃기를 원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